

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 개최

✎ 추홍식 | 🕒 승인 2025.06.22 17:01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19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19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정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관계자는 물론, 여노연 성주군의회 의원, 배선호 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 회장, 도갑수 금수강산면 농업인단체 위원장, 조형철 금수강산면장 등 지역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 기반을 다졌다.

회의에서는 성주지사의 저수지 및 수질관리 현황 보고와 함께 2025년도 수질관리 목표를 공유했다. 이어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공사 간의 역할 분담과 활동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현재 성주지사에서 관리 중인 성주저수지는 우수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관할 6개소 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청정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 보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